

경제 자료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남진욱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남진욱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namjw@kdi.re.kr

I. 머리말

북한에 있어 무역은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그중에서도 북중무역은 2014년 전체 무역의 90%¹⁾ 가량을 차지할 정도 최근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가 출처인 북한 무역통계의 특성상 북한이 아닌 중국 해관이 북중무역 통계를 발표한다는 점은 이 통계가 북한 발표 통계와는 달리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2), 3)} 특히 중국 해관 통계는 상품별, 기간별, 성별 등 매우 자세하게 분류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연구자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중무역 통계 중 2009년과 2014년에 다른 연도와 다른 특이성이 존재하여, 북중무역 통계를 살펴볼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이 두 연도를 중심으로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을 정리하도록 한다.

II. 북중무역 통계의 특징 - 일관성 vs. 특이성

북한은 무역통계를 주기적으로는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용 가능한 북중무역 통계는 무역 상대국의 통계기관인 중국 해관이 작성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국제통화기금

1) 이 수치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비중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도자료,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 대비 3.7% 증가한 76억 달러」, 2015. 6. 5.
2) 북한무역과 거울통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2008)를 참고하라.
3) 북중무역 통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석 편(2013, 2014)과 이원경(2013)을 참고하라.

(IMF DOTS), 유엔(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리하여 각자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해관이라는 한 기관의 자료를 쓰기 때문에 이 네 출처의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이 높다. 특히 IMF DOTS의 경우 연도별 자료, UN Comtrade의 경우 연도별 및 상품별(HS코드 6자리 & SITC코드 3자리) 자료, KITA의 경우 월별, 성별, 상품별(HS코드 6자리) 자료, KOTRA의 경우 연도별, 상품별(HS코드 2자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듯 분류가 각기 달라 상호보완이 매우 잘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관적인 북중무역 통계 중 2009년과 2014년에 특이성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표 1>과 [그림 1], [그림 2]는 각 출처별⁴⁾ 2005~14년 북중무역 통계를 보여준다. 이 자료가 보여주듯 전반적으로 각 출처의 북중무역 수치는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연도에 네 출처의 북중무역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이를 보이더라도 ±1% 미만의 극히 작은 차이만을 보인다. 그런데 2009년 KITA 수출입 수치와 2014년 KOTRA의

<표 1> 출처별 북한의 2005~2014년 對 중국 무역통계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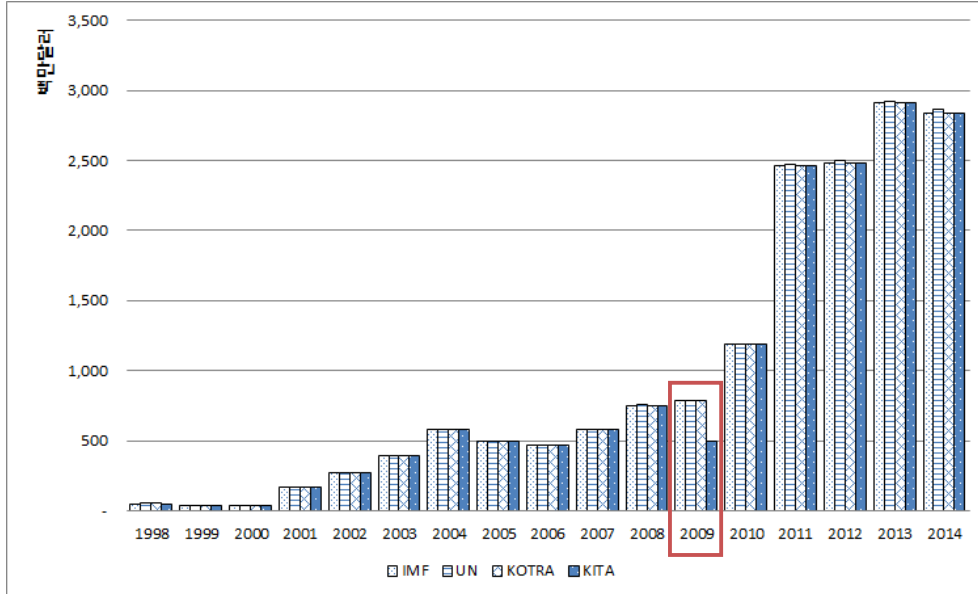
연 도	수 출				수 입			
	IMF	UN	KOTRA	KITA	IMF	UN	KOTRA	KITA
2005	497 (-0.5)	499 (0.0)	499 (-)	497 (-0.5)	1,085 (0.3)	1,081 (0.0)	1,081 (-)	1,085 (0.3)
2006	468 (0.0)	468 (0.0)	468 (-)	468 (0.0)	1,232 (0.0)	1,232 (0.0)	1,232 (-)	1,232 (0.0)
2007	582 (0.0)	584 (0.4)	582 (-)	582 (0.0)	1,392 (0.0)	1,392 (0.0)	1,392 (-)	1,392 (0.0)
2008	754 (0.0)	760 (0.8)	754 (-)	754 (0.0)	2,033 (0.0)	2,032 (0.0)	2,033 (-)	2,033 (0.0)
2009	790 (-0.4)	793 (0.0)	793 (-)	501 (36.9)	1,891 (0.2)	1,888 (0.0)	1,888 (-)	1,210 (-35.9)
2010	1,188 (0.0)	1,195 (0.6)	1,188 (-)	1,188 (0.0)	2,278 (0.0)	2,277 (0.0)	2,278 (-)	2,278 (0.0)
2011	2,464 (0.0)	2,475 (0.5)	2,464 (-)	2,464 (0.0)	3,165 (0.0)	3,165 (0.0)	3,165 (-)	3,165 (0.0)
2012	2,485 (0.0)	2,503 (0.7)	2,485 (-)	2,485 (0.0)	3,446 (-2.3)	3,532 (0.1)	3,528 (-)	3,446 (-2.3)
2013	2,914 (0.0)	2,927 (0.5)	2,914 (-)	2,912 (-0.1)	3,633 (0.0)	3,630 (-0.1)	3,633 (-)	3,633 (0.0)
2014	2,841 (0.0)	2,868 (0.9)	2,841 (-)	2,841 (0.0)	3,523 (-12.4)	3,520 (-12.5)	4,023 (-)	3,523 (-12.4)

주: ()안은 KOTRA 수치 대비 무역액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임.

자료: IMF DOTS, UN Comtrade,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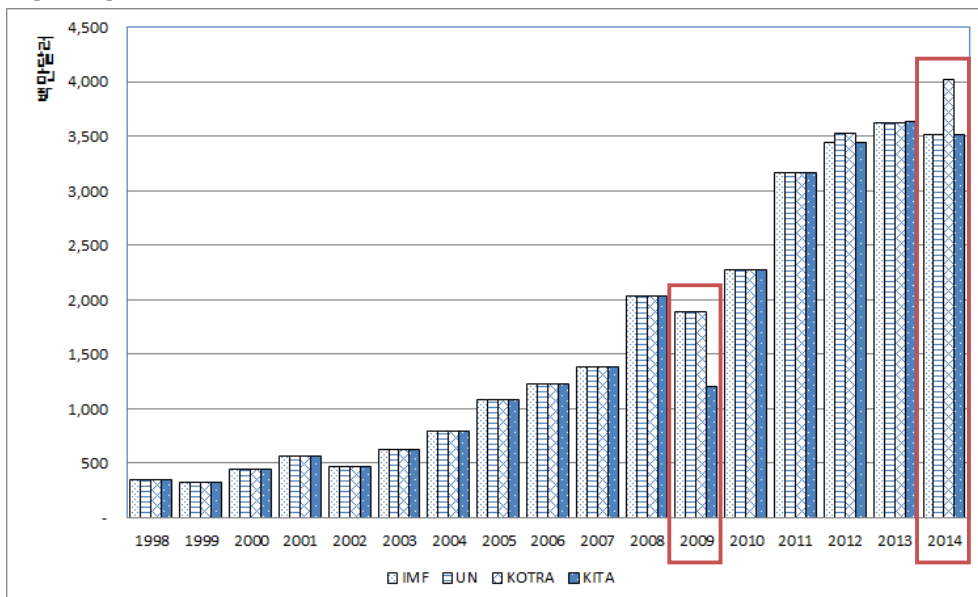
4) IMF는 1980년, KOTRA는 1990년, UN은 1992년, KITA는 1998년부터의 북중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일관된 통계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출처별 북한의 對 중국 수출 통계



자료: IMF DOTS,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KOTRA 북한의 2014년 대외무역 동향 보도자료, 2015. 6. 5.

[그림 2] 출처별 북한의 對 중국 수입 통계



자료: IMF DOTS,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KOTRA 북한의 2014년 대외무역 동향 보도자료, 2015. 6. 5.

수입 수치는 다른 출처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 차이를 보인다. 먼저 IMF, UN 그리고 KOTRA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중국에 7.9억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비해 KITA에는 이보다 약 36.9% 낮은 5.0억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오며, 수입액 또한 다른 세 출처의 18.9억달러보다 약 35.9% 낮은 12.1억달러만 수입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4년의 경우 수출액은 네 출처가 모두 약 28.4~28.7억달러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수입액의 경우 KOTRA만 40.2억달러로 다른 세 출처의 35.2억달러에 비해 약 5.0억달러 가량 높은 수치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네 출처 모두 기본적으로 중국 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무역 수치를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4년 북중무역에 특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특이성이 나타났는지 다음 장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III. 2009년 북중무역 통계 - 통계의 소실 혹은 재배치 가능성

KITA의 2009년 북중무역 통계는 다른 세 출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KITA의 2009년 북중무역 통계에 8~11월 수치가 공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KITA는 네 출처 중 유일하게 월별 북중무역 통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월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표 2>가 보여주듯 이러한 4개월 간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KITA의 2009년 월별 북한의 對 중국무역 자료

(단위: 달러)

월	KITA		IMF		UN Comtrade		KOTRA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월	41,459,746	84,758,476						
2월	40,558,384	91,042,011						
3월	57,338,542	129,057,073						
4월	66,560,312	130,547,401						
5월	63,592,520	128,155,176						
6월	82,311,079	186,563,576						
7월	84,302,934	144,711,42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4,521,447	314,801,027						
계	500,644,964	1,209,636,164	789,661,000	1,890,720,000	793,025,950	1,887,740,680	793,048,000	1,887,686,000

주: KITA만이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며, 나머지 세 출처는 연도별 데이터만을 제공함. (UN Comtrade는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2010년 이후의 월별 데이터만 제공함.)

자료: IMF DOTS,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KOTRA 북한의 2014년 대외무역 동향 보도자료, 2015. 6. 5.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따라서 자국의 무역통계를 국제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기구인 IMF와 UN의 2009년 북중무역 통계에는 KITA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8~11월 4개월 간의 무역액을 포함한 듯한 수치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연도별이 아닌 월별 통계에는 이 4개월 간의 무역액이 어디로 간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북중무역이 2009년 8~11월 사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9년에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여러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제제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중단하여 북중무역 통계에 무역액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KITA와 달리 다른 세 출처가 2009년 북중무역 수치로 KITA의 2009년 북중무역 전체 월별 합산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무역이 4개월 간 전혀 없었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09년 8~11월 사이 북중 간 무역은 발생했으나 중국 해관이 모종의 이유로 이 통계를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IMF DOTS, UN Comtrade, KOTRA의 2009년 북중무역 무역수치가 KITA의 수치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출처가 KITA 단 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출처에 비추어 검증해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실된 4개월 동안 북중무역이 발생했고 통계 또한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다만 통계가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무역으로 재배치되어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상품별 무역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 북한의 對 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HS 270900)인데, 북한은 통계상 매년 중국으로부터 50만톤 가량의 원유를 수입한다. 그런데 <표 3>이 보여주듯 2009년에는 4개월의 공백 때문에 불과 38만톤 가량만 수입한 것으로 나오며, 8~11월 4개월 간 중국의 원유 수출 통계에서 북한은 사라지고 ‘기타 아시아’라는 무역상대방이 등장한다. 이 ‘기타 아시아’는 2009년 12월 이후에는 중국의 원유 수출 통계에서 재등장하지 않으며, 2009년 8월 이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무역상대방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과 기타 아시아의 對 중국 원유 수입 통계를 더할 경우 UN Comtrade의 통계⁵⁾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2009년 금액 합계는 238,554,833달러로 완벽하게 일치하며, 총량의 경우 불과 4kg 차이만 날 정도로 근접한 수치를 보인다.

북한의 對 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무연탄(HS 270111)의 2009년 통계도 원유 수입 통계와 비슷하다. 이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8~11월 무역통계는 공백이지만 그 기간

5) HS 6자리 품목의 경우 KITA와 UN Comtrade만이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출처의 무역통계만 비교했다. IMF는 품목별 수출입 자료가 없으며, KOTRA의 경우 HS 2자리까지만 품목 자료만 제공한다.

〈표 3〉 중국의 2009년 월별 對 북한 및 對 기타 아시아 원유 수출(HS 270900)

(단위: 달러, kg)

월	KITA (중국해관통계)						UN Comtrade	
	對 북한		對 기타 아시아		對 북한 + 기타 아시아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1월	16,578,468	50,351,300			16,578,468	50,351,300		
2월	16,725,279	49,999,489			16,725,279	49,999,489		
3월	16,282,097	47,060,530			16,282,097	47,060,530		
4월	18,823,458	49,999,490			18,823,458	49,999,490		
5월	20,851,788	49,999,490			20,851,788	49,999,490		
6월	21,847,902	46,673,277			21,847,902	46,673,277		
7월	21,267,650	38,888,493			21,267,650	38,888,493		
8월			17,033,051	33,077,995	17,033,051	33,077,995		
9월			18,982,605	33,000,198	18,982,605	33,000,198		
10월			17,164,620	32,187,663	17,164,620	32,187,663		
11월			21,182,665	36,699,832	21,182,665	36,699,832		
12월	31,815,250	51,876,103			31,815,250	51,876,103		
계	164,191,892	384,848,172	74,362,941	34,965,688	238,554,833	519,813,860	238,554,833	519,813,856

자료: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2015. 6. 23 검색.

동안 ‘기타 아시아’가 등장하며, 수치를 합산할 경우 UN Comtrade의 동일품목 통계와 매우 흡사하게 나온다.⁶⁾ 이는 석유제품(HS 271019), 화물차(HS 870423), 철광석(HS 260111) 등 북한의 對 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동일하게 8~11월 무역통계에 ‘기타 아시아’가 등장하여 對 북한 무역통계의 공백을 메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표 4〉 중국의 2009년 월별 對 북한 및 對 기타 아시아 무연탄 수입(HS 270111)

(단위: 달러, kg)

월	KITA (중국해관통계)						UN Comtrade	
	對 북한		對 기타 아시아		對 북한 + 기타 아시아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1월	14,591,914	193,618,060			14,591,914	193,618,060		
2월	16,261,800	209,046,880			16,261,800	209,046,880		
3월	23,974,146	334,852,980			23,974,146	334,852,980		
4월	33,736,195	502,404,730			33,736,195	502,404,730		
5월	33,118,584	475,964,210			33,118,584	475,964,210		
6월	45,436,653	646,077,550			45,436,653	646,077,550		
7월	40,324,427	588,194,820			40,324,427	588,194,820		
8월			34,195,403	471,267,290	34,195,403	471,267,290		
9월			10,177,147	144,874,510	10,177,147	144,874,510		
10월			485,640	6,745,000	485,640	6,745,000		
11월			293,846	3,877,530	293,846	3,877,530		
12월	1,189,137	22,027,790			1,189,137	22,027,790		
계	208,632,856	2,972,187,020	45,152,036	626,764,330	253,784,892	3,598,951,350	256,186,105	3,598,163,712

자료: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2015. 6. 23 검색.

6) 총 수출액 대비 0.9%, 총 수출량 대비 0.02% 차이.

〈표 5〉 중국의 2009년 월별 對 북한과 기타 아시아 무역

(단위: 달러)

월	KITA (중국해관통계)						UN Comtrade	
	對 북한		對 기타 아시아		對 북한 + 기타 아시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월	84,758,476	41,459,746	228,883		84,987,359	41,459,746		
2월	91,042,011	40,558,384	5,600		91,047,611	40,558,384		
3월	129,057,073	57,338,542	6,681		129,063,754	57,338,542		
4월	130,547,401	66,560,312			130,547,401	66,560,312		
5월	128,155,176	63,592,520	1,325		128,156,501	63,592,520		
6월	186,563,576	82,311,079			186,563,576	82,311,079		
7월	144,711,424	84,302,934	2,202		144,713,626	84,302,934		
8월			39,716,983	87,662,101	139,716,983	87,662,101		
9월			192,126,618	80,178,814	192,126,618	80,178,814		
10월			134,480,157	56,027,481	134,480,157	56,027,481		
11월			214,574,429	52,733,427	214,574,429	52,733,427		
12월	314,801,027	64,521,447	9,861		314,810,888	64,521,447		
계	1,209,636,164	500,644,964	681,152,739	276,601,823	1,890,788,903	777,246,787	1,887,686,000	793,048,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2015. 6. 23 검색.

이렇듯 상품별 통계를 살펴봤을 때 ‘기타 아시아’에 2009년 8~11월 북중무역 통계가 재배치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2009년 전체 통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중국의 월별 對 기타 아시아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8~11월 사이 무역 수치가 유난히 높다. 또한 〈표 6〉는 중국의 연도별 對 기타 아시아 무역 추이를 보여주는데, 공교롭게 2009년에만 유독 높은 교역량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중국의 對 북한과 對 기타 아시아 교역량을 더할 경우 수출은 18.9억달러, 수입은 7.8억달러로 UN의 수치(수출 18.9억달러, 수입 7.9억달러), IMF의 수치(수출 18.9억달러, 수입 7.9억달러), 그리고 KOTRA의 수치(수출 18.9억달러, 수입 7.9억달러)와 매우 흡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KITA의 월별 북중무역 통계에는 2009년 8~11월 4개월 간의 무역이 공백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월별 자료를 제공하는 KITA 중국통계이기에 이러한 4개월의 공백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북중무역을 하나의 일관된 시계열로 재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연구자로 하여금 북중무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준다. 다만 소실된 4개월 통계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배치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⁷⁾

7) 2009년 6월 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는데, 만약 중국 해관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8~11월 통계를 누락시켰다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6〉 중국의 연도별 對 기타 아시아 무역 추이

(단위: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1998	116,739	
1999	52,797	
2000	8,259	
2001	1,467,987	
2002	543,770	94,794
2003	383,917	215,479
2004	432,707	
2005	119,449	105,000
2006	165,544	
2007	145,362	123,384
2008	307,054	176,876
2009	681,152,739	276,601,823
2010	376,586	35
2011	113,445	60,879
2012	95,291	
2013	125,911	38,272
2014	247,253	3,55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IV. 2014년 북중무역 통계 - HS 27(광물성 연료, 광물유) 차이

각 출처의 북중무역 통계는 앞서 설명된 KITA의 2009년 통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근사한 수치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14년에 들어 이 일치성은 다시 한 번 어긋났다. KOTRA가 발표한 북중무역 수치(수출 28.4억달러, 수입 40.2억달러)가 다른 세 출처가 공개한 수치(수출 28.4~28.7억달러, 수입 35.2억달러)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북한의 對 중국 수출액은 모두 비슷하게 보고했지만 KOTRA만 수입액을 5.0억달러 가량 다른 세 출처에 비해 더 높게 보고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에서 KOTRA만 다른 수입 수치를 발표한 것일까? KOTRA는 2015년 6월 23일 현재까지 아직 매년 발간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의 2014년판을 내지 않았다. 다만 KOTRA 중국사업단은 6월 5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의 주요 내용을 첨부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통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 첨부자료(〈표 7〉 참조)에 의하면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상위 세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석탄), 광물유’, ‘전자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였다.⁸⁾

〈표 7〉 KOTRA의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입 상위 3개 품목(HS 2자리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코드	금 액	비 중	증감률
1	광물성 연료(석탄), 광물유	27	691	17.2	-6.6
2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	85	420	10.4	65.3
3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84	310	7.7	17.9
총 액			4,023	100.0	10.7

자료: KOTRA 보도자료,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 대비 3.7% 증가한 76억 달러」, 2015. 6. 5.

KOTRA의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은 통상적으로 HS 2자리까지의 품목 통계를 공개해 왔기 때문에 ‘광물성 연료(석탄), 광물유’는 HS 27,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은 HS 85, 그리고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는 HS 84를 의미한다.

KOTRA를 제외한 세 출처 중 IMF DOTs의 경우 품목별 무역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두 출처인 UN Comtrade와 KITA 자료를 KOTRA 보도자료와 같이 HS 2자리로 비추어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두 출처의 2014년 품목별 무역통계는 KOTRA 통계와는 상이하게 나왔다. 〈표 8〉과 〈표 9〉에 나타나듯 UN Comtrade와 KITA는 전반적으로 흡사한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입통계를 보인다. 하지만 UN Comtrade와 KITA는 북한의 HS 27 품목 수입액을 KOTRA 발표보다 5.0억달러 낮은 1.9억달러로 보고했다. 그리하여 HS 27은 UN Comtrade와 KITA 통계상 KOTRA 통계와는 달리 수입 1위 품목이 아닌 5위 품목이

〈표 8〉 UN Comtrade의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입 상위 3개 품목(HS 2자리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코드	금 액	비 중	증감률
1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	85	420	11.9	65.3
2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84	310	8.8	17.9
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	211	6.0	-12.2
⋮					
5	광물성 연료(석탄), 광물유	27	191	5.4	-74.1
총 액			3,520	100.0	-3.0

자료: UN Comtrade, 2015. 6. 23 검색.

8) 2015년 6월 5일의 KOTRA 보도자료의 첨부자료에는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출입품목 중 상위 3개 품목의 통계만 나와 있음.

〈표 9〉 KITA의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입 상위 3개 품목(HS 2자리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품목명	HS 코드	금 액	비 중	증감률
1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	85	420	11.9	65.3
2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84	310	8.8	17.9
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	211	6.0	-12.2
⋮					
5	광물성 연료(석탄), 광물유	27	191	5.4	-74.2
총 액			3,523	100.0	-3.0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되었다. HS 85와 HS 84의 수입액은 세 출처가 모두 동일하게 보고했으며, 공공로케도 HS 27 품목의 수입 차액인 5.0억달러는 KOTRA가 발표한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전체 수입액(40.2억달러)과 다른 세 출처가 발표한 수입액(35.2억달러)의 차액과 동일한 수치다.

HS 27 품목의 수입통계를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 〈표 9〉에서 이미 나왔듯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014년에 1.9억달러 가량의 HS 27 품목을 수입했는데, 이는 2012년의 7.9억달러와 2013년 7.4억달러에 비해서는 6억여 달러 가량 하락한 수치임을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 27 하위의 HS 4자리 품목들을 KITA 통계로 찾아보니,⁹⁾ 흥미롭게도 HS 2709의 수입이 2012년 5.8억달러와 2013년 6.0억달러에서 2014년에 0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HS 27의 하위 4단위 품목들의 수입액도 연도별 변화가 있었으나 HS 2709 품목의 변화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액수의 편차가 심하다.

하지만 KOTRA와 다른 세 출처의 2014년 북중무역 통계 수치와 비교하여 5.0억달러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HS 2709 품목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향후 KOTRA의 정식 「201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가 나와야 상위 3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HS 2자리 품목의 수입액 또한 출처별로 비교하여, HS 27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9) UN Comtrade의 동일 품목에 대한 통계는 KITA 통계와 매우 근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생략함.

〈표 10〉 KITA의 2012~14년 북한의 對 중국 HS 27 하위 품목 수입(HS 4자리 기준)

(단위: 달러)

품목명	HS 코드	2012년	2013년	2014년
석탄 및 석탄연료	2701	38,813,737	23,630,564	13,677,537
갈탄	2702	0	1,553,691	0
코크스	2704	1,377,363	718,852	544,115
광물성 타르	2706	0	121,237	6,250
콜타르 증류물	2707	4,260	29,656	4,396
피치와 피치코크스	2708	3,273,874	2,950,751	3,412,295
석유, 역청유(원유)	2709	577,896,203	598,133,947	0
석유제품	2710	161,930,936	104,470,695	154,842,545
석탄가스	2711	3,487,098	5,113,353	6,588,485
석유젤리	2712	182,690	129,077	81,357
석유코크스	2713	1,398,501	2,167,171	7,323,032
아스팔트	2714	1,210	0	200
역청질혼합물	2715	23,170	15,712	7,900
전기에너지	2716	1,594,277	1,888,689	4,942,525
총 액		789,983,319	740,923,395	191,430,63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6. 23 검색.

결론적으로 2014년 북한의 對 중국 수입 통계에서는 KOTRA와 다른 세 출처와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HS 27 수입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발생했을 연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중무역 통계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특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8-05, 한국개발연구원, 2008.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4-07,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원경,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pp.101~119,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재호·김상기,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 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1-12, 한국개발연구원, 201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데이터베이스(2015. 6. 23 검색).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2015. 6. 23 검색).
- UN Comtrade(2015. 6. 23 검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도자료,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전년 대비 3.7% 증가한 76억 달러」, 2015. 6. 5.